“佛心으로 서울시정 발전 이바지”

서울시의원불자회 4일 발족…회장에 최기찬 의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여기 모인 의원들은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맡겨진 소임을 언제나 기쁘게 실천하겠습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사회 갈등 해소와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서울시와 우리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끊임없는 성찰과 정진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불자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2월 4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원불자회 창립법회서는 참석한 14명의 의원들의 불심이 그대로 느껴졌다.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한 후 시의회 내 불자의원들은 불자회 창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의회 내 40% 가량이 기독교의원들로 이들은 이미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불자의원들이 모일 정기법회는 하나도 없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20% 가량인 20여 명이 불자로, 이들을 모을 구심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10대 의회 21명 의원 참여해
조계종 정식 신도 조직 인가
격월 사찰 순례 등 신행활동

불자의원들이 그동안 느꼈던 안타까움은 출범식에서 느껴졌다. 최기찬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다른 종교와 달리 불자회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21명의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며 “함께 뜻을 모은 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소외 이웃들을 잊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원문 낭독과 함께 최기찬 시의원(금천구)을 회장으로, 김광수 시의원(도봉구)을 부회장으로 출범한 서울시의원불자회는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여야를 떠나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불자회는 격월 1회 불교성지 및 사찰 순례를 하고, 교리공부 자리도 갖기로 했다. 출범식 전 1월 중으로 템플스테이를 먼저 갖기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됐다. 서울시의원불자회 창립으로 수도권 사찰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원불자회 창립법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불자회의 활발한 활동을 서원하고 있다.

간사인 경만석 시의원은 “9대 때부터 몇분이 활동을 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기왕 모임을 할 것이면 조계종에서 정식 인가를 받고, 국회 정각회처럼 정규조직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종단에 요청, 지난해 12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늘 출범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은 세계 속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시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정치, 경제, 사회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이기도 하다”며 “서울시 불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수행과 더불어 자비로운 포용, 치우치지 않는 중도정신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불자회를 창립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치하했다.

신도들을 대표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오늘 이 법연은 여야를 떠나 부처님 법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국가와 불교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신행교류와 포교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도법사를 맡게 된 우봉 스님은 “여기 모이신 의원분들은 시정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계시다. 불심으로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조직관리 강화

2월 2일 신년기자회견
관리체계 확립에 중점
소외계층 지원 방침도

조계종 복지관리 체계가 고도화된다.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불교계 기관 증대에 맞춰 재단 운영시스템 개선과 산하시설 관리체계 개선이 진행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 · 사진)은 2월 2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방침을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는 종무기조를 바탕으로 2021핵심과제로 △재단 운영시스템 개선 △산하시설 관리고도화 및 사회복지인재 양성 △자문위 구성 통한 발전전략 기획 △국제개발협력사업 내실화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 2018년 일부 산하기관 부실에서 드러난 관리책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해 이사장과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재단 운영 책임부여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고 실무는 상임이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변경된 체제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돼 법적 책임까지 맡게 된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등기이사가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며, 원장스님은 이사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동안 체제보다 책임성을 더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종단의 기대가 있다”며 “조직체계도 이와 함께 개편해 종단이 복지분야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종단과 책임부분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기에 운영에서는 소통이 강화된다. 자문회 설치와 종령에 근간한 실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조계종 총무부, 사회부, 기획실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그동안 사찰 캠페인이나 대면 캠페인을 통해 모금을 진행했는데, 온라인 모금으로 전환하여 재원마련에도 나선다.

김남국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운영사업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5%가량 기부금이 감소됐다. 재단의 산하시설 기여금 확충과 산하시설이 지자체 약정된 법인 전입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감면받는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25년간 종단과 사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복지재단은 종단 예산이 10%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민간협력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불교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자리 잡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 기간동안 산하 직업재활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보인 스님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며 “산하시설에서 효율성 등으로 어려움을 표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지원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비대면 후원개발 등을 통해 소외계층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학술지도 이젠 친환경 시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자불전〉 22집 USB 배포
기록보관용 50부 제외한
배포용은 PDF로 제작해
포장재도 재활용 종이로

불교학 관련 학회들은 저마다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행한다. 종이 인쇄 학술지가 아닌 USB로 학회지를 배포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진명, 이하 전자불전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자불전〉 22집을 USB에 담아 회원과 연구자,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전자불전연구소는 “학회지 〈전자불전〉 22집은 종이 적게 사용하기(Paperless)시대에 동참하기 위해 PDF로 제작하고 USB3.0 메모리에 담아 제공하게 됐다. 포장재 역시 이미 사용하던 종이를 재사용했다”고 밝혔다.


PDF로 제작돼 USB에 담겨 발행된 〈전자불전〉 22집. 포장재도 사용하던 종이를 재사용했다.

실제 전자불전연구소는 기록보관용 학술지 50부 정도만 인쇄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불전연구소장 진명 스님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고 하고 보니 기록보관용 이외에 학회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종이 낭비가 심한 것을 줄이고자 PDF로 학회지를 제작해 USB에 담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경판은 가능한 ‘어떻게 오래 보존할까’ 하는 것이 화두였다면, 불전 전산화 기술은 ‘어떻게 계속 새로 바꿀까’ 하는 것이 주제로 ‘보존’ 보다는 ‘공유’에 목적이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자불전〉 제22집을 처음으로 전자매체로 발행하게 됐다”면서 “이것은 불필요한 나무를 덜 쓰고 종이 쓰레기를 덜 만드는, 불교의 연기적 · 생태적 태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퇴임 앞두고 예방

2월 3일 총무원장 스님에 “불교계 도움에 항상 감사”

퇴임을 앞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양우 장관은 2월 3일 원행 스님에게 “퇴임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다”며 “종교지도자 협의회와 종교평화위원회(KCRP)를 이끌며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 큰 어른으로서 종교 화합에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덕분에 큰 힘을 받았다”며 재차 감사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대산 월정사 삼화상(三和尙) 사진 수집

한암선사, 탄허선사, 만화희찬 선사 사진을 수집합니다.
소유하시는 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한암선사 · 탄허선사 · 만화희찬 선사의 사진이나 그 외에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스캐너를 가지고 방문하여 원본 손상 없이 파일로 만들어 담아 오겠습니다 (단행본 출간 시 책을 보내드립니다). 삼화상 사진 자료 수집에 무루 동참하여, 관련 자료가 집취 되고 한국 근현대 불교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월정사 미디어 실장 **지철**(스님) **전화 010-5019-0334**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에서는 만화희찬 선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삼화상(한암, 탄허, 만화희찬) 사진전 및 사진집 간행 ●오대산 삼화상의 동영상 제작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단행본 발간 등